

# 충북학 누리

## 창간호 특집

충북학누리를 떠나며  
충북학에 바란다

## 충북학연구소 소식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 개설  
"선비정신, 국화에 물들다" 선비정신과 국화 전시전 개최  
2020년 1,2차 충북학포럼 개최

충북 지역학 소식 | 충북에 지역학 바람이 불다

# 충북학누리

## CONTENTS

01	창간사 충북학 소식지 「충북학누리」를 펴내며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02	05	전설의 고향, 충북 #충주 광부처거리	12
02	충북학에 바란다 (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강태재	03	06	충북학 발간 도서	16
03	충북학연구소 소개	05	07	충북학연구소 소식	18
04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18세기의 천재 작가, 노궁(盧兢)	08	08	충북지역학 소식	22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1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 01 충북학누리를 펴내며



글: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충북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가 개소한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연구지 「충북학」을 발간하였고 2020년 올해 22집이 발간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구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등을 기획하여 연구총서 7권, 교양총서 7권, 자료총서 11권, 테마기행 9권, 충북역사문화인물 10권, 100년 전 충북 10권, 기타 6권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충북학포럼을 개최하여 충북학 담론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민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북재발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시 재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우리 연구소의 위안거리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아직도 충북학연구소의 인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지역학, 충북학에 관심을 보여 주신 많은 도민 여러분, 연구자, 지역 원로, 충청북도 등의 지지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학의 가치를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알릴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고민의 일부를 정리해보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충북학 소식지 ‘충북학누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누리’는 ‘세상’입니다. ‘충북학누리’는 ‘충북학 세상’입니다. 충북, 충북학을 논하는 세상이 필요치 않을까하는 고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는 사업 결과물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에 투고논문과 지역과 관련된 도민의 의견을 실어 연말에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충북학연구소에는 도민에게 전달하고 호응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아카데미에는 보다 많은 도민의 참여가 필요했고, 충북학포럼 역시 보다 많은 도민의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리는 작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북학누리’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충북과 관련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소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충북학’ 세상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충북학누리를 통해 ‘충북’의 학문적 성과, 충북의 문화적 우수성을 계속 발굴하고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미흡합니다. 알려드리는 내용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간호에서는 그동안 충북학의 성과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칭찬할 것이 있으시면 많은 칭찬 부탁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칭찬을 받는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타할 것이 있으시면 질타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모자란 것은 채워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 충북학에 바란다



글: (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강태재

먼저, 충북학연구소의 '충북학누리' 창간을 축하하며, 이를 통해 충북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충북학연구소에 바란다'라는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만 역량이 매우 제한적인 충북학연구소에게 지금보다 더 바란다는 게 가당한지 되묻게 됩니다.

충북연구원에 부설된 충북학연구소의 인력은 1999년 설립 이래 직원 1명에 겸직 소장이 인력의 전부였다가 근래 들어 계약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재원은 충청북도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한 해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간 충북학연구소가 수행한 성과는 괄목할 정도로 많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을 비롯하여, 충북의 재발견, 충북의 사람과 문화, 충북학연구총서 시리즈, 충북학교양총서 시리즈, 충북테마기행 시리즈, 중원문화유산 시리즈,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10권), 충북학 자료총서(11권), 기타 등등 연구사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조사사업으로서 사료와 자료의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학술사업으로는 충북학심포지움 개최(11회), 충청북도지 편찬 워크숍(2회), 충청북도 문화예술발전 대토론회, 충북학 지역문화학술회의, 충북학 포럼 개최(12회) 그리고 대외사업으로 충북학 초청강연회(8회)와 충북학 아카데미(2013년 이래 매년)를 개최하고 있는 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얼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만 충북학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따라 충북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발전을 모색하려면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구사업을 보다 폭넓고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며, 충북학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학 아카이브 구축과 충북 고유의 스토리텔링 발굴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북학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충북학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인력 양성 및 지원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의 모체인 충북연구원의 조직을 보면 기본적으로 1실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원 2곳과 10개의 부설기구가 있는데, 충북학연구소는 10곳 중 하나죠. 단적으로 말씀드려 충북학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본원의 1실 4부 중 하나에 준하는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박사급 연구위원 4~5인, 전문연구원 등 최소 10명 내외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봤자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우선 그렇게라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소액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전문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충북학연구소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학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북학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충북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지원 그리고 공유 공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충북학연구센터를 설정하여 충북학연구소가 이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협의기구로서 충북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충북연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편성 지원토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연구원의 일부로서 간신히 유지해 왔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나마도 무용지물 취급을 받아 없애버리려 했던 적도 있었고, 타 지역 연구소처럼 충북연구원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다른 연구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더 이상 조직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규모로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동안 충북학연구소 소장직을 가장 오랫동안 맡아 온 김양식 박사가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력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겸직 소장이 아닌 전담 소장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체제에서 중앙 대 지방이라는 종속적 개념 속에서 사고하고 생활해왔습니다. 서울은 중앙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라는 오랜 관념이 모두가 중앙을 바라보고 서울을 향하게 하는 가운데 지방 아닌 지역의 존재는 미미했었습니다. 중앙의 문화를 쫓는데 급급하여,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시각,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개념이 아닌 지역과 지역이라는 대등한 입장, 지역차원에서 사고하고,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일상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며, 충북의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그 중심 역할을 바로 충북학연구소가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03 충북학연구소 소개

## 충북학 연구소

### 설립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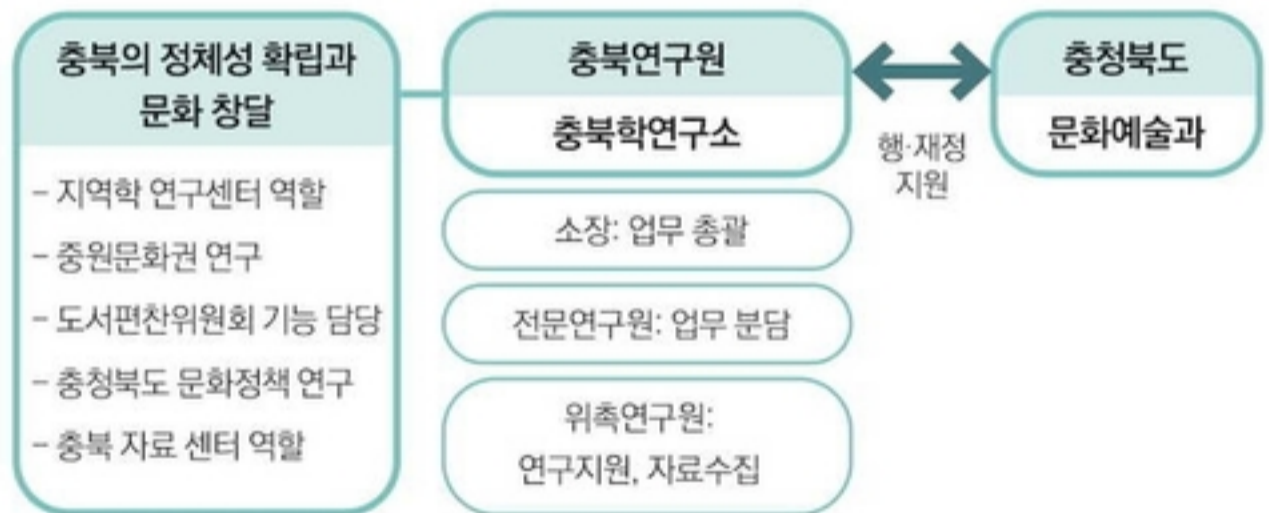
1999년 2월 24일

### 설립목적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편성과 세계성 위에서 자리매김하며, 지역 주민들이 주변화된 의식을 극복하고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1999년 2월 24일 충북개발연구원 부설로 '충북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조직 및 기능과 역할



## 연혁

- 1999.02.24. 충북학연구소 설립
- 1999.02.24. 조육현 초대 소장 취임
- 1999.02.24. 제1회 충북학 심포지움 개최(개소 기념) — "충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 1999.05.27. 제1회 초청강연회 — 유홍준 "충북지역 답사여행의 길잡이"
- 1999.09.03. 제1회 사료조사위원회의 개최
- 1999.12.30. 충북학연구지 창간호 발간
- 1999.12.30. 충북학자료총선 제1집 「충북학문헌목록집」 발간

1999.12.30.	충북테마기행 제1집 「충북의 문학과 예술 그 숨결을 찾아서」 발간
2000.04.01.	충북개발연구원장 제2대 소장 취임(이태일 겸직)
2000.08.09.	민병찬, 상산고적회 자료 기탁
2000.10.09.	충북학 번역총서 「100년전 충북의 옛모습-제천시편」 발간
2000.10.10.	충북연구총서 제1집 「충북의 석조미술」 발간
2000.11.01.	충북학연구소 운영규칙 제정
2001.08.30.	「도안면지」 편찬
2001.05.18.	제1차 충북인물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개최
2001.06.26.-08.26.	한국시민기록문화전시회 공동 개최
2001.11.30.	충북학교양총서 제1집 「새야새야 파랑새야」 발간
2002.01.20.	충북학연구소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2002.10.26.	2002 충북문화포럼 개최 — 주제: 동학농민혁명과 충북, 그리고 생명
2004.09.17.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 대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 발전과 충북의 대응”
2004.10.16.	제1회 충북학문화제 개최 — 다도와 함께하는 영국사 절집 체험, 영국사
2004.11.10.	제1회 충북학 지역문화학술회의 개최 — “진천군의 지역문화 현실과 과제”
2004.12.13.	충북학자료총서 「20세기 전반 충북지역 인구통계」 발간
2007.07.25.	충북인물선양사업, 2007년도 선양인물 선정
2009.07.01.	김양식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09.12.10.	중원문화유산 시리즈 1 「마음으로 읽는 중원인의 얼굴」 발간
2009.12.14.	충북학 연구지를 종합저널지로 개편하여 제11집 발간
2010.01.02.	정연정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11.01.02.	김양식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11.12.	중원문화유산 시리즈 2 「충북의 전통술」 발간
2012.08.	「충북민속문화의 길잡이」 발간
2013.04.26.	충북학아카데미 개최
2013.06.18.	충북학 포럼 개최 — “충북 정체성과 도민화합 어떻게 할 것인가?”
2015.01.02.	김규원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15.12.31.	「충북바로알기」 발간
2016.05.20.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 개최
2016.12.31.	「충북재발견」 발간
2017.10.20.~21.	충북학포럼 및 제12차 한국지역학 포럼 개최
2017.10.31.	충북재발견 「미호천」 발간
2017.11.01.	김양식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17.11.08.	지역학 한마당 개최
2018.03~07.	충북재발견-신항서원 인문의 숲 학교 개최
2018.04.~10.	충북재발견-달래강123 인문예술프로젝트 진행
2018.11.07.	충북학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업무협약식 개최
2018.11.08.	충북학 인문기행 개최
2019.01.02.	정삼철 연구위원 소장 취임
2019.02.~04.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2019.06.	충북학 자료총서 발간(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군세일반)
2019.08.	「충북산업지」 발간
2020.01.02.	김양식 연구위원 소장 취임

## 주요사업 방향과 내용

구분	사업방향	사업내용	사업 결과 및 형태
충북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작업</li> <li>- 중원문화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연구</li> <li>- 충북지역학의 학문적 성숙 도모</li> <li>- 지역학 연구의 구심점 역할</li> <li>- 도사(道史) 정리와 편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과 관련된 미진한 연구분야 지원</li> <li>- 타지역 및 세계 역사 문화와의 비교연구</li> <li>- 학제간 공동연구</li> <li>- 지역학 이론 개발</li> <li>- 매년 연구지 간행</li> <li>- 충북학총서 간행</li> <li>- 매년 1~2회 워크숍과 심포지움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학교양총서 7권</li> <li>- 충북학자료총서 11권</li> </ul>
축적된 자료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문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결과물의 대중화</li> <li>- 도민의 지적 욕구 충족</li> <li>-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간과 매체 제공</li> <li>-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학 교양총서 간행</li> <li>- 시청각세대를 위한 미디어 시리즈 간행</li> <li>- 다양한 기행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역사, 문학, 문화, 생태, 자연 등)</li> <li>- 충북학 및 중원문화에 관한 교양 강좌, 전문 강좌</li> <li>- 초청강연회 개최</li> <li>- 특별전시전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서 7권</li> <li>- 충북학기행총서 (충북테마기행) 9권</li> <li>- 초청강연회 개최</li> <li>-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학 문화행사</li> <li>- 충북학포럼</li> <li>- 충북학아카데미</li> </ul>
충북 관련 자료 집적을 위한 자료정보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 집적</li> <li>- 충북학 연구를 위한 기반 확보</li> <li>- 경화된 자료를 생명있는 자료로 정보화</li> <li>- 도민에게 충북과 관련된 자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 수집과 정리</li> <li>- 자료집 간행</li> <li>- 구술자료 채록</li> <li>- 충북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li> <li>- 충북 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구축</li> <li>- 충북자료센터 운영</li> <li>- 도민에게 충북학, 중원문화, 도정 관련자료 정보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학자료총서 10권</li> <li>- 충북학 아카이브 DB구축</li> </ul>
문화예술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문화관광국과 긴밀한 협조, 지속 가능한</li> <li>- 21세기형 문화예술정책 개발</li> <li>-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 연구</li> <li>- 문화예술정책자료 수집과 평가</li> </ul>		



# 04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글: 조영임 (문학박사)

## 18세기의 천재 작가, 노궁(盧兢)

“우리나라 수천 리 국토 안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태어났다 해도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죽었다 해도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태어나 조선은 한 사람을 얻었고 그가 죽어서 조선은 한 사람을 잃었으니, 그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조선후기 이가환이 남긴 말이다. 이가환은 이익의 종손이며 이용휴의 아들로, 정조로부터는 정학사라고 호칭되었던 대학자였다. 조선에서 태어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다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디 조선뿐인가. 그런데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학자인 이가환에 의해, '조선이 한 사람을 얻고 조선이 한 사람을 잃었다'고 할 정도의 고품을 받을 만한 인물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런 대단한 인물이 조선에서 활동하였단 말인가? 다산 정약용은 뱃속에서부터 교묘함을 뽑아낸 시인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조수삼은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인물은 바로 한원 노궁(盧兢, 1738~1790)이다. 김영진, 안대회 같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노궁은 청주를 세거지로 한 교하 노씨 후손이다. 자는 여림(如林), 호는 한원(漢源)이다. 아버지 노명흥(盧命歙)은 야담집 『동비낙송(東裨洛誦)』을 저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청주목사를 지낸 흥봉한 집안의 글선생으로 일생을 보낸 몰락한 양반이었다.

노궁은 6세 때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여 흥봉한으로부터 조선의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일찍부터 문재를 드러내었다. 15세 때 부친을 따라 상경하여 흥봉한 집에 기숙하면서 기라성같은 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흥봉한, 흥룡한, 흥장한 등 풍산 홍씨 일가 외에도 이용휴, 정범조, 이가환, 박지원, 김창협, 김이곤 등과 같은 인사들과 교유하였다. 그리하여 최신 문단의 흐름과 경향을 흡수할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뿐만 아니라 중인에 해당하는 여항인들과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교제를 하였다.

노궁은 29세에 진사가 된 후 37세에 대과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불합격의 이유는 문사(文司)의 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과에 불합격한 그 즈음에 아버지 노명흥과 부인인 청주한씨를 이별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후 노궁의 일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1777년 41세에 일어난다. 그가 과거장에서 과문(科文)을 팔았다는 이유로 평안도 위안군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가환의 글에는, 1773년 노궁이 회시를 볼 때 같은 마을에 사는 늙은 선비가 답안을 쓰지 못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자신의 답안지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노궁이 매우 즐거워하였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세간에서는 남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가환도 당시 권력을 쥔 자가 사건을 날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장남인 노면경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울진으로 7년간 유배되었다. 귀양지에서 돌아온 노궁에게 불행이 연달아 닥쳤으니, 바로 장남, 며느리, 그리고 계모의 잇따른 죽음이였다. 노궁은 세상에 대한 울분과 절망감, 고독감으로 광인의 삶을 살다가 겨우 54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대부분의 천재가 그러했듯, 노궁 역시 기인이었다.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예의와 법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단속이라는 것을 몰랐다. '죽음과 술잔을 멈추는 것은 겨우 한 칸의 사이일 뿐'이라는 시적 표현이 있듯이, 술을 좋아하여 늘 취해 있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로는 의욕을 상실하여 때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술주정뱅이에 방약무도한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작품을 창작했다. 특히 소품문으로 명성을 날렸다. 일찍이 홍취영은 “그의 문장은 기이할지언정 평범하지

않았고, 궁벽할지언정 속되지 않았으며, 괴이할지언정 천박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남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교로움을 삼았다.”라고 하였으며, 또 “노공은 자가(自家)의 문장을 스스로 이루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문장이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을 참고하면, 노공의 문장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세계는 기이함[奇]과 새로움[新]으로 가득 찼다. 조선의 문장가들이 쓰지 않는 '결'이 다른 문장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의 한시 몇 편을 읽어보기로 한다.

### 신정자를 애도하며 (申正字輓)

저승의 판관도 재주가 없나봐  
인생의 정해진 주석을 부질없이 매달았구나.  
이런 대단한 인물을 만나 빨리도 데리고 가다니  
속이 좁아서인가 시기해서인가.  
冥府判官亦不才, 人生定註枉懸來.  
逢些俊物促將去, 似是褊心似是猜.

신정자를 애도하며 쓴 시이다. 만시는 본래 죽은 이를 애도하는 슬픔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위의 시에 서는 대단한 인물을 서둘러 저승으로 데리고 간 일명 저승사자를 불재(不才)하다고 탓하고 있다. 사람의 운명과 목숨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살게 할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속 좁은 저승의 판관이 재주 있는 인물을 시기하여 그리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뜻밖의 죽음을 당한 지인을 애도하는 수법이 이처럼 남다르다. 그런데 첫째 구의 '역(亦)'의 쓰임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저승의 판관도 재주가 없'듯이, 권력을 가진 자들도 뛰어난 인재를 시기하여 배척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도 읽힌다.

### 再疊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느라 허리가 아파서  
낙엽이 대문에 쌓이도록 다리 건너 나가는 일 게을리했네.  
매화 핀 절에서 만나자는 맑고 그윽한 약속만 헤아리고  
시사의 초대는 오히려 정중하게 사양한다네.  
취하여 말쑥씨를 발휘하면 그들의 욕설이 따라오고  
굶주려도 눈썹을 낮추지 않으면 나더러 교만하다 하네.  
그들이 어찌 서맥송을 감당할 문장이 있겠나?  
연이어 사흘동안 내리는 서설을 지켜본다네.  
逢人拜揖苦酸腰, 黃葉填門懶口橋.  
只數清幽梅寺約, 猶辭鄭重社筵招.  
醉能辭口從他買, 飢不低眉謂我驕.  
豈有文章堪頌麥, 連看瑞雪下三朝.

시의 전면에 조롱과 야유가 넘치고 마치 옆에서 말하는 듯한 구어투가 보이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노궁 시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몰락한 양반의 자제로, 아버지를 이어 지체 높은 양반가의 글선생 노릇을 하는 처지라 어디를 간들 허리 굽혀 인사를 해야 한다. 속이 뒤틀려 이골저골 보지 않으려고 아예 문밖 출입을 삼가고 있다. 그런데도 무슨 무슨 시모임이라고 초대받는 일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저희들끼리는 '청유(淸幽)'하고 고상한 모임이라고 하겠지만, 노궁은 그것도 마뜩찮아 핑계를 대고 사양하며 참가하지 않는다.

어찌다 참여한 모임에 술에 취하여 속에 있는 문장 이야기라도 할 것 같으면 잘난체한다는 욕설이 나 들기 일쑤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밥 먹듯이 굶어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으면 저들은 교만하다고 수군거린다. 그렇다면 노궁에게 잘난체하고 교만하다고 욕을 하는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문장가들인가. 노궁은 '사흘 동안 내리는 서설을 보고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서맥송을 나보다 잘 지을 자가 있는가'라며 오히려 저들의 무능을 조롱하고 폭로하였다.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만은 드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노궁의 산문 한 편을 읽어보기로 한다.

### 제망노막석문(祭亡奴莫石文)

모년 모월 모일. 주인은 글을 지어 죽은 노비 막돌의 장례에 고한다. 아, 너는 채씨로 네 아버지는 관동 땅의 양민이었고, 네 어미는 내 외가의 여종이었다. 네 아버지가 내 말을 끈 지 스무 해에 길거리에서 죽어 내가 남원의 만복사에 장사지냈다. 네 어미는 나를 기른 지 서른 해에 집에서 죽어 내가 공수곡 서산 밑에 장사를 치렀다. 네 형은 근면히 나를 위해 일한 지 수십 년 되었는데 또 집에서 죽었고, 나는 또 장사를 치렀다. 이제 또 네가 아들도 없이 죽었으니 너희 채씨 집안은 결국 종자가 없어졌구나!

네가 태어난 지 세 해 만에 네 아버지가 죽었고, 여섯 해 만에 네 어미가 죽었다.

네 안주인이 너를 거두어 길렀는데,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까 염려했다. 네 안주인이 돌아갔을 때 너는 아직 5척에 괴이한 형클어진 머리를 하여 마치 마른 원숭이 같았다. 내가 또 재앙을 만나 부자가 흩어지게 되자 너는 만 리 길을 울부짖으며 동해 바닷가로(아들이 간성 땅에 귀양갔다) 달려갔다가 또 관서 변방으로(아버지는 위원 땅에 귀양갔다) 눈서리, 더위와 비에 오가며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머리가 벗겨지도록 왕래하여도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또 가난한 집에서 일하느라 두 눈이 항상 흐릿했는데 하루도 일찍 자거나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 등을 굽고 머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며 티없이 즐거워하였으니 내가 부끄럽고 부끄럽구나.

만약 네 배를 가르면 분명 붉은 것이 있어 마치 불처럼 땅 위로 솟구쳐 오를 것이니, 주인을 향한 평생의 핏물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제 지하로 가면 네 아버, 어미와 형, 그리고 네 안주인과 작은 주인이 내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떠서 다투어 내 형편을 물을 것이다. 근년 이래로 사지가 불편하고 이가 빠지고 머리가 듬성듬성하여 늙은이가 다 되었다고 너는 고하겠지.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낮빛을 바꾸며 나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

위의 글은 죽은 노비 막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노비를 위해 제문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격적이다. 일반적으로 제문은 모월모일로 시작하여 흥향으로 끝을 맺는다. 그 사이에 망자의 집안 내력과 망자의 덕망과 인품을 서술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노공의 위 제문은 모월모일로 시작하였으니 제문의 형식을 갖추려 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망자의 집안 내력을 서술하였다. 막돌이의 성은 채씨다. 아버지는 양민이었으나 노공의 말을 20년 끌다 죽었고, 어머니는 외가의 여종으로 유모처럼 노공을 서른 해 키우다 죽었다. 막돌의 형도 수십 년 동안 노공의 집에서 일하다가 죽었고, 막돌이는 이제 아들도 없이 죽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막돌이 온 식구가 노공의 집에서 노비로 봉사하다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막돌이 집안의 내력이라니,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먹먹하게 한다.

두 번째 단락은 막돌이의 인생과 성품에 대한 서술이다. 막돌이는 태어난 지 세 살과 여섯 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윈 외로운 팔자였다. 거기에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까 봐 주인이 늘 걱정했다. 어려서는 키가 작고 비쩍 마르고 머리는 산발을 하여 행색이 볼품없었다. 노공 부자가 유배가는 바람에 이쪽저쪽을 쫓아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일찍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성실하였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이 막돌이 인생의 전부였다니, 안타까움을 넘어 인생의 허무를 경험케 한다. 앞의 두 단락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차라리 허문(虛文)이 될지언정 조금의 과장이라도 덧붙였다면 덜 가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세 번째 단락은 막돌이가 저승으로 가면 죽은 아버지, 어머니, 형과 함께 노공의 죽은 식구들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죽은 이들이 막돌에게 자신의 근황을 묻거들랑 "주인님은 요사이 몸이 편치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답니다. 이도 하나 둘 빠지고요,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라고 답할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고 혀를 차면서 노공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제문에서 애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망자이건만, 위의 제문은 망자가 아닌 글쓴이로 환치된 것이다. 결국 막돌이의 이야기에서 노공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토로하는 글쓰기로 삼았다. 막돌이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푸념이 내재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원 노공은 기인이었으며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18세기를 대표할 만한 작가였다. 조수삼이 노의 문집을 보았을 때 한시 528수, 문 215편이라고 기록한 바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한원문집』에는 한시 379수, 문 52편만이 전하고 있다. 청주 장암동에는 노공이 책을 햇볕에 말렸다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남아있다. 거기에는 '폭서암(曝書巖)'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또 바위 한편에는 1808년 여름에 노공의 문인 황득효가 선생의 폭서암을 잊지 않기 위해 글자를 새겨 놓았다. 폭서암을 복원하고, 노공이 청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18세기 천재적인 작가의 흔적이 청주에 남아있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05 전설의 고향, 충북

글/그림: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연구원)

## 충주, 광부처거리 전설

전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형태의 설화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며, 지역에 실존하거나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1986년 간행된 『전설지』는 충북지역의 전설 620편을 실고 있다. "전설의 고향, 충북"은 해당 자료집에 실린 충북의 전설을 만화 형태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먼저 소개할 전설은 '광부처 거리'로 충주를 배경으로 하는 전설이다.



# 광부처거리

\*조불: 불상이나 부처의 화상을 만들.







염바다들

그뒤, 철불은  
염바다들  
서쪽 풀밭에서  
발견되었다.



철불이 사람들 눈에  
띄면서 충주에는  
미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철불을  
학대하는 등 마구 다루어



양손이 파손되고  
없어졌다고 한다.



이 철불이 있던 거리를  
광부처 거리라고 부르게 되어  
오늘에 전한다.



보물 제98호



이 철불은 1959년 대원사로 이안했어.  
지금은 대원사 극락전에서 이 철불을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현재 보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지!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 06 충북학 발간 도서

## 충북학연구소 발간도서

2020년 현재 충북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도서는 85권으로 「충북학」, 「충북학연구총서」, 「충북학자료총서」, 「충북학교양총서」, 「충북테마기행」, 「충북재발견」, 「중원문화」, 「충북역사문화인물」, 「100년 충북의 옛 모습」, 그 외 「충북학문헌목록」 등이 있다.



충북학 21권

199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연구지이다. 창간호부터 제10집까지는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순수 논문집으로 발간하다가, 2009년 제11집부터는 단순 논문집 형태에서 벗어나 저널지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충북학 연구 총서 7권

충북 관련 역사·문화와 관련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총서로 「충북의 석조미술」(2000), 「충북의 민속문화」(2001), 「충북의 고대사회」(2002), 「충북의 선사문화」(2006), 「충북의 구전민요」(2013) 등 7권이 발간되었다.



충북학 교양 총서 7권

도민의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충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총서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2001), 「마음으로 노래한 글 직지」(2006), 「충북인의 기억이 머무는 곳」(2013), 「충북바로알기」(2015) 등을 발간하였다.



충북학 자료 총서 11권

산재되어 있는 충북지역 관련 사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는 번역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발간한 도서로, 「충북 100년 신문기사집성」(2000), 「충북의 무가·무경」(2002), 「충북도정자료집」(2013), 「괴산군 군세일반」(2019), 「충북산업지」(2019) 등을 발간하였다.



충북학연구소  
바로가기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학 연구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책들을 지속적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상의 도서들은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csi.cri.re.kr>



충북재발전 3권

충북재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도서로 『산·소리·사람』(2016), 『미호천』(2017), 『달래강 123 예술인들이 도록』(2018)이 있다.



충북테마기행 9권

충북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테마로 설정하여 집중 조명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간한 도서이다. 『충북의 문학과 예술 그 숨결을 찾아서』(1999)를 시작으로 『국립공원 소백산』(2010)까지 발간하였다.



충북역사문화인물 10권

충북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서 선정한 충북 지역의 역사문화인물을 주제로 발간한 도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권을 발간하였다.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 10권

충북과 충북인의 사회·경제상을 담고 있는 『한국 충청북도일반』(1909, 충청북도관찰도)을 번역하여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별로 나누어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도서이다. 2000년부터 충주시편으로 시작으로 10권을 발간하였다.



중원문화유산 시리즈 2권

충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자 기획된 도서로,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감성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마음으로 읽는 중원인의 얼굴』(2009), 『충북의 전통술』(2011) 등을 발간하였다.



기타 충북학 관련 서적 5권

기타 충북학연구소 발간도서로는 『충북학문헌목록집』(1999), 『충북 100년 연표』(2004), 『도안면지』(2001), 『충북 1백년 자료선집』 I·II (2004·2005) 등이 있다.

# 07 충북학연구소 소식

\* 각 행사 영상은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1차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개최

일시: 2020년 5월 22일(금)

장소: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충북학연구소는 5월 22일(금) 오후 7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와 동학정신"이라는 주제로 2020년 1차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충북학연구소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문화를 충북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매년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여 왔다. 올해 첫 번째로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을 초청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사회의 정신적 지향점을 동학정신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아카데미를 마련하였다.

강연에 나선 박맹수 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를 비교하여 설명하며, 동학정신을 되살려 향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양은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10여 년간 머물며 동학혁명의 견고한 틀을 마련한 공간이요, 보은 북실은 동학혁명의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공간으로 충북은 동학의 처음과 끝이 함께한 땅이라 강조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충북 지역 동학 관련 인물인 의암 손병희, 송암 손천민, 일해 서장옥, 청암 권병덕 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 개설

충북학연구소는 지난 6월 4일(목)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영상 자료를 업로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개하기 위함이다. 충북지역주민과 더불어 도외의 사람들에게 충북지역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며, 비대면(언택트)의 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 유튜브 채널은 충북학연구소의 지속적인 정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학연구소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 콘텐츠 역시 유튜브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제1차 충북학포럼 역시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후 자막 및 편집을 거쳐 포럼 영상은 재업로드하였고 현재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과 편집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충북학연구소  
Youtube 바로가기

## “선비정신, 국화에 물들다” 선비정신과 국화 전시전 개최

기간: 2020년 11월 9일(월) - 20(금)

장소: 충북연구원 1층 로비

충북학연구소는 11월 9일(월) 오후 4시 “선비정신, 국화에 물들다”라는 제목의 충북 선비들의 시(詩)와 국화 전시전을 개최했다. 해당 전시전은 11월 20일(금)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전에는 인위적인 손길을 최소화하고 계절의 풍상을 고스란히 겪은 국화 분재와 더불어 충북 지역 선비들이 국화를 소재로 지은 한시(漢詩), 시조, 동시를 소개했다. 오상고절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화는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로 서리 내리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 인고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다.

국화 분재는 인석실업 대표 이종찬 씨가 세 가지 원칙을 따라 길러낸 것이다. 일과 시간에는 국화를 만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와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며, 인위적인 시설이나 재배기법을 따르지 않고 국화를 길러오고 있다. 로비에 전시된 국화 그림은 작가 김성미의 작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하는 전시전으로 현장 관람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전 및 오픈식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 2020년 제1차 충북학포럼 개최

주제: 6·25전쟁 70년, 충북의 기억과 의미

일시: 2020년 6월 24일(수)

장소: 충북연구원 중회의실(2층)

충북학연구소는 6월 24일(수) 오후 3시 "6·25전쟁 70년 충북의 기억과 의미"라는 주제로 2020년 제1차 충북학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포럼을 개최하여 충북지역의 전쟁 양상과 피해 상황을 되짚어보고 그 기억이 70년이 지난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영조 국사편찬연구소 전쟁사 부장이 '충북지역 6·25전쟁의 특징과 성격'을 주제로 충북지역의 전황과 정부 전시조치, 충북지역 전투의 특징과 의미, 충북지역의 피난민 문제와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루었으며, 김양식 충북학연구소 소장은 '6·25전쟁에 따른 충북지역 변화'라는 주제로 전쟁에 따른 인구의 변동과 정치집단 및 경제주체의 변화를 살피고, 현충시설의 현황을 통해 전쟁의 기억을 되짚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의 참석자는 강태재(충북시민재단), 김지형(서원대 역사교육과), 박상민(주성고등학교), 박소영(충청리뷰), 정연승(충북작가회의), 조동언(판소리)다.



## 2020년 제2차 충북학포럼 개최

주제: 새마을운동 50년, 충북의 기억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충북연구원 중회의실(2층)

충북학연구소는 11월 27일(금) 오후 3시부터 충북연구원 중회의실(2층)에서 "새마을운동 50년, 충북의 의미"라는 주제로 2020년 2차 충북학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전개된 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실시되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포럼을 개최하여 충북지역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락 교수(영남대학교)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논쟁과 2010년 이후 새마을운동의 학문화 과정'을 주제로 새마을운동의 연구 전개와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을 살피고, 새마을운동의 현대화 작업의 필요성을 논했다. 김양식 소장(충북학연구소)은 '1970년대 충북지역 새마을운동 자료 검토'를 주제로 충북지역의 새마을운동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의 특징을 살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의 참석자는 강미영(충청북도 공무원), 김춘식(충청북도새마을회 사무처장), 류영모(전 충북새마을지도자회장), 이용철(충북대학교 박사), 조혁연(충북대학교 초빙교수)이다.



## 2020년 발간 도서

### 「충북학」 22집

1999년 12월부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연구지로, 학술지 겸 저널지의 성격을 갖는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과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충북학포럼 자료를 모은 특집과 심사를 거친 투고 원고 12편을 수록하여 발간한다.

### 「단양읍지」

조선 순조 대에 편찬된 단양군의 관찬읍지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역화하여 발간한 책이다. 본 읍지는 단양군의 건치연혁, 경계, 관원, 성씨, 산천, 도리, 풍속, 방리, 호구, 전결, 군액, 곡총, 토산, 관방, 봉대, 학교, 단묘, 능묘, 창고, 교량, 제언, 역원, 공해, 불우, 누정, 도서, 고적, 명승, 인물, 효자, 열녀, 선생안, 제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읍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영 편이고 인물항목도 많은 편이다. 본 읍지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757년~1765년에 편찬한 「여지도서」 이후 단양군 지역의 사회변화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기근 해결에 사용된 식물 100선, 「조선의 구황식물」

1919년 조선농회에서 발간한 「조선의 구황식물」을 번역한 자료이다. 「조선의 구황식물」은 한국어(고어)와 한자 발간된 도서로, 이를 현대 국어로 번역하였다. 1919년 한반도의 큰 가뭄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자 조선농회에서 이재민을 구제할 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조선농회에서 당시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일본인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 1882~1976)에게 의뢰하여, 한반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구황식물 100종을 선별하고, 이를 활용한 식용법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100년 전 한반도의 식문화(食文化)를 살펴 볼 수 있다. 수록된 식물의 사진 이미지를 추가 삽입하여 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조선지리지(朝鮮志誌畧)」, 「충청도지부(忠淸道之部)」

「조선지리지」는 일본의 참모본부가 주관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적 목적으로 1888년 11월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병요지리서(兵要地理書)이다. 전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1은 경기도지부, 권2는 충청도지부(忠淸道之部), 권3은 함경도지부, 권4는 평안도지부, 권5는 황해도지부, 권6은 강원지부, 권7은 경상도지부, 권8은 전라도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책은 이 가운데 권2 「충청도지부」에서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18개 지역만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 1930년 발간 「제천군세일반」

일본인들에 의해 충북의 제천군 군세(郡勢)가 정리된 자료로 1930년도에 발간되었다. 제천군의 연혁을 비롯하여, 발간연도에 즈음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각 군 통계연보에 해당하는 자료다.

### 「충북, 충북인 이야기」

충북 지역의 근현대사를 증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삶에 관한 생애구술사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특히,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하여 6·25전쟁 참전 전사자의 가족과 영동 노근리 민간인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6·25전쟁이 지역민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고, 전쟁의 참상 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08 충북 지역학 소식

## 충북에 지역학 바람이 불다

1993년 서울학이 태동하고 1999년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학 연구기관을 발족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10년대에 들어서 지역학 연구기관이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26곳에 지역학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지역학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청주대에서 청주학연구원 이 생기고 2020년 옥천학연구소가 옥천문화원에 설립되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족되는 지역학 연구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 충주향토학진흥계획 수립

충주시에서는 충주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충북학연구소'에서 수립하였는데 "살아 숨 쉬는 향토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4대 영역 20개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 제천학 연구소

제천문화원에서 제천학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청주학연구원

청주대학교에 청주학연구원이 부설 연구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청주학연구원은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과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예술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원이다.

### 옥천학연구소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가 2020년 7월 29일 설립되었다. 옥천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이인석 전 문화원장이 위촉되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2

홈페이지 <http://csi.cri.re.kr>